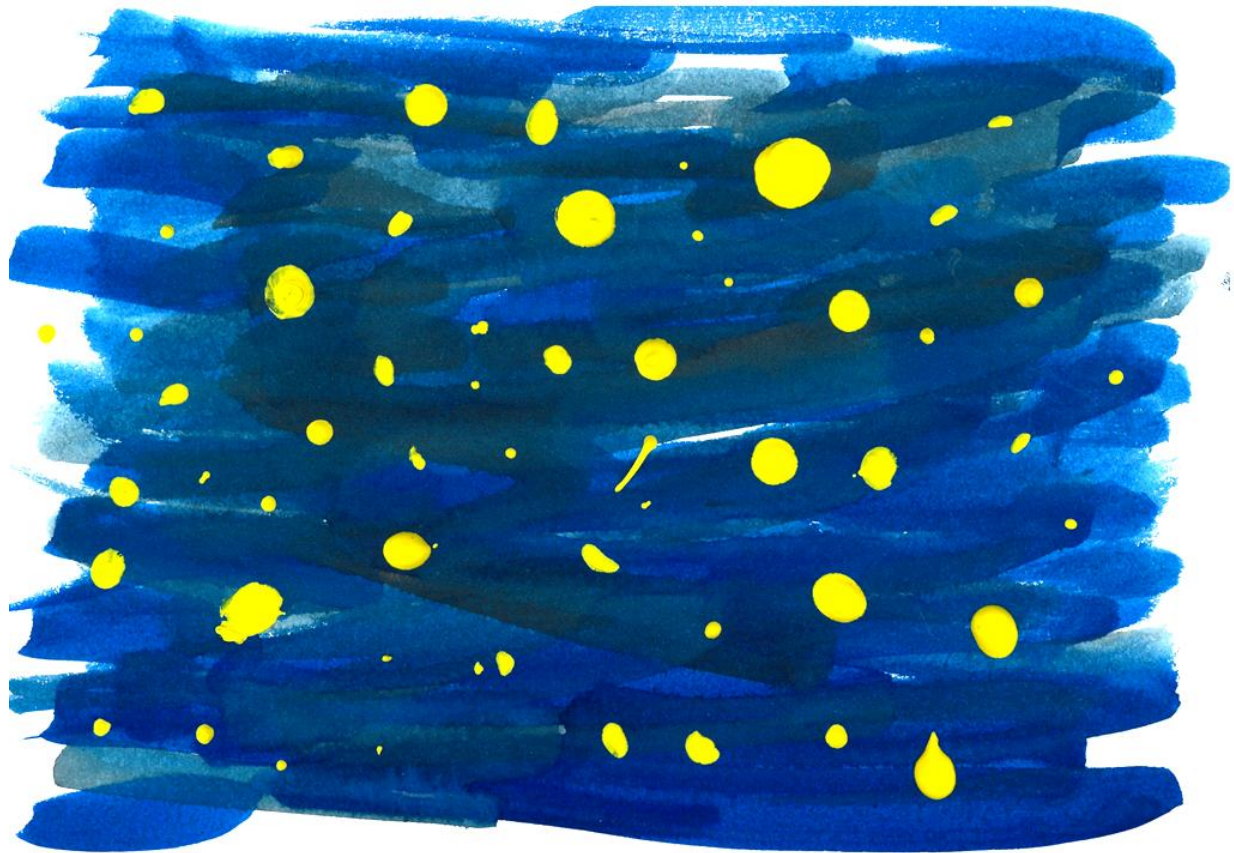


이제는
다들
라

글 그림 조연지





[교실 속 그림책 105] 빛나는 달

2017년 10월 31일 초판발행 2017-00105

| 지은이 | 조연지

| 지도 및 제작 | 이현아

| 펴낸곳 | 교육미술관 통로

| 홈페이지 | www.museum-tongro.com

| ISBN |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 총서명 | 교실 속 그림책

| 세트번호 | 979-11-957446-5-7 (세트) 75810

이 책의 저작권은 지은이 조연지와 교육미술관 통로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머 리 말

교실 속 그림책 창작 프로젝트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그림책은 [교실 속 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가진 여러분 자신만의 책입니다. 그림책 창작 과정을 통해 한 명의 교사이자 첫 독자로서 여러분의 내면 세계와 만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독자로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한 권의 책을 구상하고, 기획하여 작품을 완성하는 경험을 통해 필자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이작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자기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이 여러분이 품은 빛과 언어를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이작은 한 권의 책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이어나갈 무궁무진한 창작의 세계를 응원합니다.

작가의 말

나는 4학년 때부터 인터넷 채팅을 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에게 인터넷 채팅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내게 다가와주었기 때문이다. 내 책의 제목이 “빛나는 달”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빛나고 싶어서 내 책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다.

나는 매번 소설을 썼다. 이 그림책은 처음으로 그림까지 시도해본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내가 고백해둔 것으로 인해서 또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인터넷에서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무조건 인상부터 찌푸리시는 것 같다. 그 시선이 힘들어서 많이 고민하고 망설였다. 이현아 선생님께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까 말까 고민했다. 그런데 선생님은 나를 나쁘게 보지 않으셨다. 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정말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내가 쓴 그림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걸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는 인터넷 채팅이 생명이 되고, 힘이고, 행복일 수도 있다. 무조건 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지 말고 인정해 달라고, 그리고 한번쯤 이해해달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나는 평소에 글을 쓰는 것이나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아직 남의 시선에 대해 고민이 많다. 항상 꾸며도 남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쓰고 고민한다. “넌 꿈이 뭐야?”라는 물음에 나는 보통 “아이돌이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너에게 누가 가장 힘이 되니?”라는 물음에는 남의 시선이 신경쓰여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끄끙 앓으며 고민하곤 한다. 언제쯤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누가 무엇을 하든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색으로 나를 자유롭게 표현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다. 나 자신의 감정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된 것 같다. 항상 나를 어둡고 불행하게만 여겼는데, 내 안에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고 다양한 감정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특히나 ‘빛달’ 친구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하고 싶다.

“빛나는 달, 너희는 나에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야.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 모두 앞으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들 어두웠다.




주변의 색이 바뀌어도 늘 혼자였고 어두웠다.






그런 나에게 다가와주고 위로를 건네 준 빛이 생겼다.



어두운 내 마음에 조금씩 빛이 새기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상처를 받아서 다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그 상처도 다시 점점 밝은 색이 칠해지기 시작했다.



✓ 파란 하늘처럼,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온전히 다 칠해졌다.


행복할 때 내 마음은 노랗게 빛났다.




마치 밤 하늘의 별과 달처럼.

A watercolor illustration of a mountain range. The mountains are rendered in various shades of purple, lavender, and pink, with soft, blended edges. A winding road or path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leading up a hillside where a small, simple house is situated. The overall style is soft and artistic, with a dreamy atmosphere.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환하고 행복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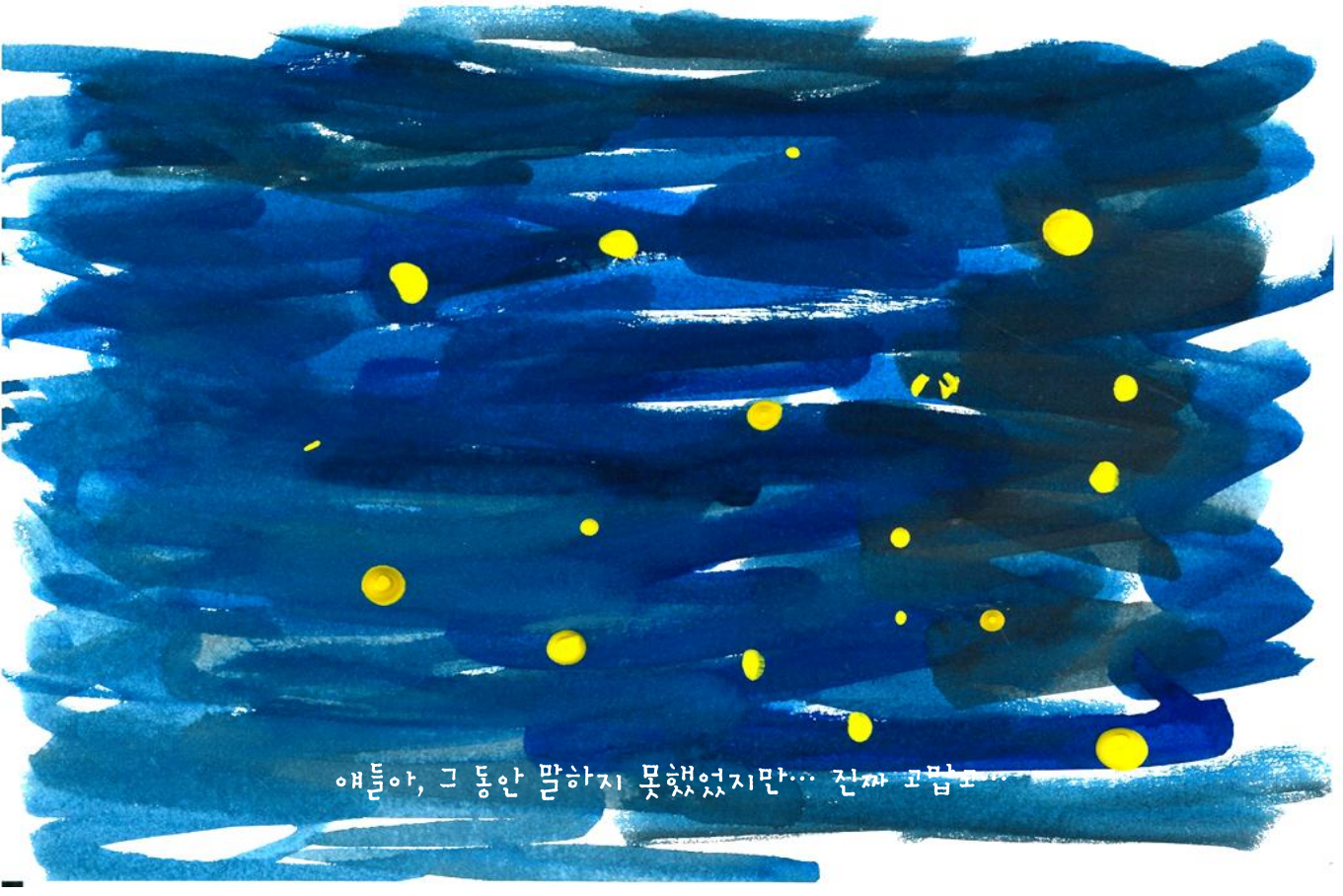
마치 벚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생긴 빛과 색이 점점 섞이게 되었고



점점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빛이 나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얘튼아, 그 동안 말하지 못했었지만... 진짜 고맙고...



사랑해! 잊지 않겠어.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빛나는 달[전자자료] / 지은이: 조연지

서울 : 교육미술관통로, 2017

전자책 책

ISBN 979-11-87790-26-6 75810 : 비매품

창작 그림책[創作--冊]

813.8-KDC6

CIP2017007088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 (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r>)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7007088)

Philosophy

[통로, 스며 흐르다]

1. 흘러가다

교육미술관 통로는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풍요로운 아름다움을 흘려보내는 연결통로(헨리나우웬, 2011)가 되고자 합니다.

2. 스며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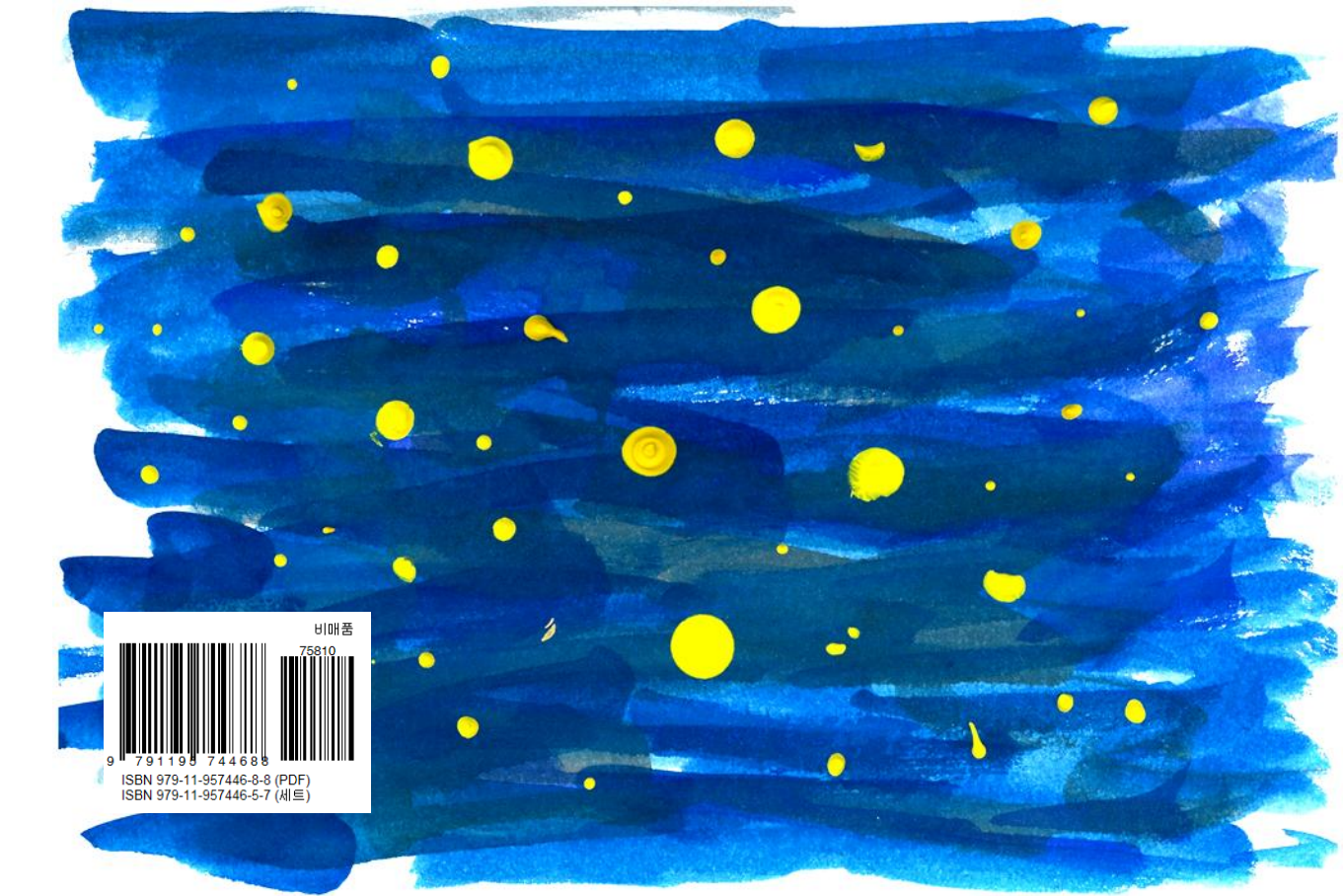
교육미술관 통로를 통해 흘러가는 선한 영향력이
아이들의 마음에 시와 그림이 되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교실 속 그림책]의 모든 어린이창작그림책은 교육미술관 통로 www.museum-tongro.com에서 eBOOK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비매품

75810



9 791195 744688

ISBN 979-11-957446-8-8 (PDF)
ISBN 979-11-957446-5-7 (세트)